

# “조국이 부르면 맹호는 간다!”

아침을 열며

정연권

정연권 색향미야생화 연구소장



탄핵 가결 하루 전날 대전에서 전우들이 모였다. 진호1중대 송년회였다. 산수유 축제 때 구례에서 만나고 두 번째다. 나이가 들어가니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전우들이 보고 싶었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 같이 늙어가는 전우들의 근황이 궁금했다. 고된 훈련과 힘들고 지친 순간들을 회상하며 위로하고 싶었다. 열악한 복무환경을 이겨내고 다진 결속력을 보고 싶었다.

선임하사 두 분과 사병 출신 11명이 모였다. 원탁 테이블에서 술과 함께 군 시절 이런저런 일들을 회상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환담이 이어졌다. 정치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말하지 말자 했으나 모두는 안다. 계엄령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복무 당시 10·26, 12·12, 5·18까지 7개월간 역사적 사건들로 비상계엄 상황과 대통령이 세 번 바뀌는 혼란을 겪었다. 격동의 시간을 보냈기에 계엄이란 말도 하기 싫었다. 비상계엄은 너무나 무서운 악몽이었다. 비상계엄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다.

필자는 ‘맹호부대’ 출신이다. 12·12 군사반란에서 진압군으로 언급된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다. 서울의 봄 영화에서는 ‘수기사’라고 언급됐다. 그날 출동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다. 서울로 간다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멍하니 있었다. 전차와 장갑차로 무장된 기갑부대가 출동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5·18 민주화 운동 때 “전라민국은 빨

갱이 세상이다” 등 일부 선임병에게 모욕과 구타를 당했다. 정치군인들의 욕망으로 전라도 사람들만 고난을 받았다. 공정하고 공평한 민주주의로 같이 잘살아 보자는 것이 어찌 빨갱이인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자는 게 빨갱이인가. 무슨 연유로 악마화하고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하는가. 반문하고 원망했다. 빨갱이란 말은 정치적 맥락에서 비롯된 부정적 편견과 지역적 갈등의 결과인데 군대에 서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탄식이 절로 나왔다.

군대를 좋아서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신성한 국방의무라고 하지만 모두 끌려온 사람들이었다. 상명하복에 노예 같은 생활을 33개월하고 7일간 복무했다.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난 게 한탄스럽기도 했다. 제대 후 그쪽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 부대 인근에 출장을 가도 애써 외면했다. 그렇게 힘들었던 군대 생활은 공직에 있으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됐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고된 훈련은 자양분이 되고 에너지를 발산하게 했다. 군대에서 겪은 고난과 힘든 순간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원예 사병으로 발탁돼 국화, 사루비아, 한련화 등을 키워 병영을 화사한 꽃밭으로 만들었다. 원예학 전공을 살려서 좋았고 꽃을 연구하는 단초(端初)가 됐다. 산악행군 중 났던 야생화는 위로와 많은 영감을 줬다.

추억은 아름다운 것인가. 그 시절 전우들과 만남은 정말 소중한 순간이다. 이제는 그런 경험이 오히려 삶의 지혜와 힘으로 변해 다시 전우들과 만남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청춘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함께한 전우들과 유대감은 노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것 같다.

1박 2일 전우들과 같이 보내니 20대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다. 새벽에 ‘늑

은 군인의 노래’가 생각났다. 마음이 송고해졌다. 두 선임하사께 존경과 감사한 마음이 샘물처럼 솟았다. 아침을 먹고 보니 모두 얼굴이 밝다. 우리만 그럴까. 아니다. 미국에서 ‘영예 비행(Honor Flight)’ 프로그램에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워싱턴 D.C. 전쟁 기념비를 방문해 군대 시절 기억과 전우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게 했다. 노병들은 군대 시절 기억을 회고하고 자존심을 되찾았다고 한다. 치매 노인에게 청바지를 입게 하고 60~70년대 대중가요, 영화 등으로 청춘 시절 에너지와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준 덕택에 건강을 회복했다는 사례도 있다.

그랬다. 전우들은 힘든 군대 시절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승화해 젊었을 때 에너지와 용기를 다시 찾았다. 맹호부대 출신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컸다. 같이 국난을 극복한 애국심이 아직도 철철 넘쳤다.

세상이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초고 무서워 몸과 마음이 떨린다. TV, 신문을 보기가 두렵다. 이리저리 참담한 심정을 헤아릴 길이 없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지금 “조국이 부르면 맹호는 간다!”는 맹호부대 구호를 외친다. 강한 의지가 충만하다. 힘있게 지켜온 대한민국을 사수하라. 전지훈련에 나갈 때 힘차게 외쳤던 “맹호출림(猛虎出林)”을 다시 외친다. 사나운 호랑이가 수풀 밖으로 나왔다. 많은 국민이 집에서 길거리로 나왔다. 국민이 맹호가 됐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 간사한 무리를 응징하러 나왔다. 젊은 여성 맹호들이 선봉장이 됐다. 논밭에 있는 트랙터를 몰고 농민들도 뛰쳐나왔다. 국민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다. 국민이 이긴다. 맹호출림! 맹호!

## 社說

### 정부 여수산단 경쟁력 대책 환영한다

#### 석화업계 자구노력도 필요해

정부가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석화 업계의 불황 원인이 중국·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때문이라 진단했다. 또한 2028년까지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석화 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업계와 상의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석화 설비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예상되는 경우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석화업계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근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의 발표로 여수 석유화학산업이 재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현재 여수 산단은 위기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단인 여수산단에 입주한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의 공장 가동률은 올해 3분기까지 평균 80%를 넘지 못했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2공장, LG화학은 여수 SM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사업 재편 의지를 보여주면서 여수산단 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정부는 업계가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하면 신속한 지원과 함께 실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후속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여수산단은 전남 산업의 심장부나 다름없다. 지역 내에서 스스로의 살길을 찾지 못한다면 정부의 노력도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 여수산단 내 석화업계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전남도와 여수시, 지역 정치권도 여수산단 위기 극복에 힘써야 한다. 그것이 ‘미래 살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다.

### 발상의 전환으로 체류형 관광 유도해야

#### 당일 관광은 지역발전 한계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당일관광에 머물고 숙박 등 체류는 감소세를 보인다고 한다. 어렵게 지역을 찾은 외지 관광객이 머물지 않고 당일 지역을 떠나는 것은 반쪽 관광에 다름 아니다. 묵어가는 지역 관광으로 바꿀 수 있는 숙박 기반 시설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 확충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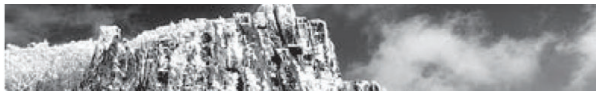
25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지역별 관광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문자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광주는 총 6769만 5828명, 전남은 1억2750만 4696명으로 전년에 비해 광주는 1.7% 증가한 반면 전남은 0.4% 감소했다. 특히 지역에 머무는 숙박방문자는 전년도 동기 대비 광주 4.2%, 전남 7.1%가 줄었다. 숙박일수는 광주의 경우 평균 2.96일, 체류시간은 2804분으로 전국 평균 대비 각각 0.07일, 407분 길었다. 전남의 평균 숙박일수는 2.79일로 전국 평균 대비 0.1일 적었고 체류시간은 2495분으로 전국 대비 98분 길었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 인근 상가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 더욱이 이들 관광객이 지역에서 숙박을 하고 소비를 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당일 관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유동 인구가 늘어나 침체된 지역 관광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역에 체류하는 관광객을 늘리는 것이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인구감소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인 셈이다. 지역마다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광객이 당일 관광에 만족하는 이유는 숙박관광을 위한 지역의 인프라와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숙박 기반 시설 등 여건을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이벤트도 마련해야 한다.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숙박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역민의 참여도 중요하다. 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기회와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webmaster@jnilbo.com (062)510-0321

### 서석대



지인에게서 책을 한 권 건네받았다. 한승원의 장편 ‘흑산도 하늘길’이다. 이 소설은 한 작가가 고향인 장흥 바닷가 언덕에 ‘해산(海山)도굴’을 짓고 스스로를 가둔 채 집필에만 전념한 지 10년째 되던 해에 펴낸 작품이다.

한승원만의 절제되고 깊이 있는 필치로 쓰인 ‘흑산도 하늘길’은 조선 순조 때 신유박해로 흑산도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끝내 해배되지 못하고 생을 마쳤던 ‘천주학쟁이’ 정약전의 삶이 그 대강이다.

소설은 비록 다시는 물로 돌아오지 못할 절해고도에 갇혔으나, 자유의 삶을 구하고자 했던 약전의 치열한 몸부림을 생생하게 풀어냈다.

‘흑산도 하늘길’은 나주 대경포에서 배에 올랐던 ‘흑산도행’에서, 책 말미 ‘손암과 작가의 가상 인터뷰’까지 소흑산에서 9년, 대흑산에서 7년을 보낸 유배자의 삶이 짙게 배어 있다.

소설 가운데 256쪽 ‘조개속에 들어 간 새’에 나오는 승률조개 이야기는 소설의 절정이다. 이 대목을 읽노라면 전율이 일다.

‘자산어보’를 쓰던 약전은 조개 속에서 새가 나왔다는 승률조개를 발견한다. 조개의 입 속에서 나온 것이 새의 머리와 부리 모양을 닮아 붙인 이름이다. 정약전은 하늘을 날던 파랑새가 어느 날 조개 속으로 들어가고 그 조개가 변해

다시 파랑새가 되어 날아가는 장면을 떠올린다. ‘정약전이 파랑새가 되어 창공을 나는 꿈’이다.

‘질프르고 거친 바다 물결 속에 떠 있는 섬 흑산도는 거대한 조개껍데기이고 나 정약전은 그 속으로 들어온 한 마리 파랑새다. 그 새는 머지않아 거대한 검은 껍데기를 열어젖히고 훨훨 날개를 저으며 물로 날아갈 것이다.’ (259쪽)

사방이 거친 바다로 둘러싸인 절해고도 흑산도에서 벗어나는 길은, 새가 날아가는 하늘길뿐이었다. 한승원 작가는 흑

산도와 우이도를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그 참담한 감함과 슬프도록 황홀한 자유의 길을 동경해 약전의 감정에 작가의 삶을 투영한 것이다.

책을 읽는 내내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했던 말이 되뇌인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어쩌면 200여년 전 흑산도의 손암이 장흥의 해산을 돕고, 구했는지도 모른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돕고 구했듯이...

나라 돌아가는 꼴이 영 마뜩지 않고, 연말이라 헛헛한 마음까지 들어 오랜만에 책임기에 열중했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최도철 미디어국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